

0. 서론

저는 2013-1학기에 TU Berlin으로 단기유학을 다녀온 수학과 권영흠입니다. 제가 단기유학을 간 2013 Summer Semester의 경험을 토대로 후기를 작성했으므로, 이후의 단기유학과는 차이가 있을 지도 모르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유학 준비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Berlin에서 지내면서 알아야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1. TU Berlin 교환학생 지원

A. 지원서 작성

i. Exchange Student Application

1. TU Berlin의 Summer Semester는 4~7월에 진행됩니다. 그에 앞서 3월에 Preparatory German Course가 있기 때문에, Course 신청 여부에 따라 3월~7월 혹은 4월~7월 중 하나를 Total Period에 적으면 됩니다.
2. 입학허가서,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Guide 같은 서류를 TU Berlin에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이를 위해서 POSTECH 국제협력팀의 주소를 Address until arrival in Berlin에 적으면 됩니다. 또한 TU Berlin에서 교환학생들에게 E-Mail을 통해서 많은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3. Buddy 신청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ii. Certificate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국제협력팀에 가져가서 작성을 부탁 드리면 됩니다.

iii. Application for a Dormitory Room – 기숙사 사용을 원하는 기간을 Desired Rental Period에 적으면 됩니다. 이 역시 독일어 강의 신청 여부에 따라 3월 혹은 4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B. 기숙사 신청

- i. 저는 기숙사를 3월부터 사용했는데, 사용할 기숙사를 알려주는 E-Mail을 1월 말에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에서 기숙사 주소, Housing Administration 주소와 Office Hours, Maintenance Person Office Hour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http://www.studentenwerk-berlin.de/en/wohnen/studentische_wohnanlagen/hilfe_unterstuetzung/wohnheimtutoren 에서 각 기숙사의 Tutor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Buddy 신청 – 1-A-i에서 설명한 Exchange Student Application에서 Buddy를 신청합니다. 저는 Buddy를 신청해서 배정받을 수 있었고, 배정 결과에 대한 E-Mail을 2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D. Preparatory German Course 신청 – 신청에 대한 E-Mail을 1월 초에 받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Course를 신청하고 Placement Test를 등록하면 됩니다.

E. Online Enrollment – TU Berlin에 학생으로 등록하기 위한 Online Enrollment에 대한 E-Mail을 2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에 포함된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인쇄하면 됩니다.

F. 기타 정보 – http://www.auslandsamt.tu-berlin.de/international-office/information_for_exchange_students/parameter/en 에서 교환학생에게 필요한 제출 서류 양식과 기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POSTECH 단기유학 관련 할일

A. 수강신청서 제출 – POSTECH의 수강신청 기간에 단기유학에 대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기간에는 TU Berlin의 개설 강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Summer Semester 개설 과목을 2월 말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유학의 경우 이후의 수강정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선 TU Berlin의 과거 개설 강의를 보고 수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개설 강의 검색은 6-A에서 설명하겠습니다.

B.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입국과 출국이 보장되고 보험 금액이 상해 5만불, 질병 3만불 이상인 보험을 한국에서 미리 가입한 다음,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POSTECH 국제협력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5-C에서 설명하겠지만 독일로 가져갈 영문 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3. 출국 준비

A. 여권 – 일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여유 있게 받아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B. 비자 – 독일의 경우 미리 비자를 받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독일에 도착한 후 Residence Registration, Residence Permit을 빠짐없이 받으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G, 4-K에 있습니다.

C. 항공권 – 출국과 귀국 일정을 정한 다음 항공권을 예매하는데, 저는 <http://www.skyscanner.co.kr> 에서 항공권을 찾았습니다. 특히 출국의 경우 기숙사 입사, Early Bird Meeting을 비롯한 여러 단기유학 일정을 고려해서 도착 일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 입사는 4-A, Early Bird Meeting은 5-A에서 설명하겠습니다.

D. 기숙사 찾아가는 길 – Berlin에 도착하는 날 기숙사를 찾아가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기숙사 주소를 통해 <http://www.vbb.de/en/index.html> 에서 대중교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E. 기숙사 입사 준비 – 1-B에서 설명한 기숙사 신청에서 Maintenance Person Office Hours와 Tutor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가 기숙사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Maintenance Person란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Hausmeister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Hausmeister에게 열쇠를 받습니다. 만일 기숙사 도착을 Hausmeister의 Office Hours에 맞추기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가면 Tutor에게 열쇠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Tutor는 각 기숙사에서 여러 일을 책임지고 있는 학생으로, E-Mail로 요청을 하면 Office Hours가 아니더라도 Tutor에게서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F. 현금 – Berlin 생활을 시작할 때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Semester Contribution (5-D), 기숙사 사용료와 보증금 (4-F), Preparatory German Course 수강료 (5-F) 가 금액이 큰데, 이 금액들을 합치면 900유로가 넘었습니다.

G. 송금 및 카드 준비 – 단기유학 경비를 한국에서 독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역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송금을 했고, VISA 체크카드를 준비했습니다.

- H. 전자 제품 - 독일의 전기는 220V에 50Hz이고, 한국은 220V에 60Hz를 사용합니다. 저는 노트북 충전기와 휴대전화 충전기만 가져갔는데, 사용 주파수 범위가 50~60Hz라고 적혀 있었고 독일에서 사용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용 주파수 범위가 맞는 전자제품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I. 휴대전화 - 대부분 스마트폰은 독일 통신사에 가입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져가는 쪽이 편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4-B에 있습니다.
- J. 음식, 식기, 이불, 기타 생활 잡화 - 이런 것들은 짐을 쌀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면 굳이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4-D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Berlin에서 비싸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 K. 옷 - 저는 추위를 많이 타고 대신 더위는 잘 타지 않는데, Berlin의 3월은 추워서 가져가지 않았던 겨울 외투를 사야 했고, 대신 7월은 그리 덥지 않아 여름 옷은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추위나 더위에 약한 경우에는 겨울이나 여름 옷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L. 필요한 서류 - 입학 허가서, 영문 보험 가입 증서, Online Enrollment 결과는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여권 사본, 여권 사진,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Guide를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4. Berlin 생활 관련 할 일

- A. 기숙사 입사 - 3-E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숙사 열쇠, 우편함 열쇠, 세탁 카드를 받고 기숙사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듣고 나면 끝입니다.
- B. 휴대전화 개통 - 할 일을 하기 위해 Berlin 이곳 저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개통을 일찍 한 다음 Fahrinfo Mobil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de.hafas.android.vbb>) 같은 Berlin 대중교통 앱을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는 Hauptbahnhof에 있는 O2에서 Prepaid로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했는데, 인터넷은 1달에 500MB를 15유로에 썼고, 통화는 15유로를 충전해서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 C. 3월 교통권 사기 - 5-A에서 설명할 Early Bird Meeting에서 받은 교통권 신청서를 Berlin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BVG에 가져가서 3월 교통권을 샀습니다. 교통권에 붙일 여권 사진이 필요했고, 저는 TU Berlin에서 가까운 Zoologischer Garten 역에 있는 BVG에서 처리했습니다.
- D. 음식, 식기, 이불, 기타 생활 잡화 사기 - 쌀과 같은 한식 재료는 Asian Market에서 대부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Hackerscher Markt에 있는 Mekong이라는 곳에서 14유로에 쌀 10kg, 4.5유로에 고추장 1kg 등을 샀습니다. 다른 음식 재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데, 저는 Kaiser's라는 곳에서 0.6유로에 우유 1L, 1.3유로에 계란 10개, 2유로에 감자 2kg 등 많은 식재료를 샀습니다. 식기, 이불, 기타 생활 잡화는 IKEA 또는 다른 마트에서 비싸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 E. Internet 연결 - 저는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Hotzone이라는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제 방에서 신호가 강해서 그런지 인터넷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다른 교환학생과 함께 2명으로 신청해서 매달 14유로를 내고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Hotzone 신청은 E-Mail로 하는 것이 편리했고, 신청 후 약 1주일 뒤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F. 기숙사 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 기숙사를 운영하는 Housing Administration은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Hausmeister와 다르기 때문에, 주소와 Office Hours를 확인해서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기숙사 사용 첫 달의 사용료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한 달 사용료의 1.5배였습니다. 둘 다 납부하고 나면 영수증과 Rental Agreement, 기숙사비 자동이체 신청서를 받습니다.
- G. Residence Registration - 기숙사 Rental Agreement를 받으면 이 서류와 여권을 가지고 Bürgeramt에 가서 Residence Registration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어로만 업무를 보려는 공무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Buddy처럼 독일어를 하는 사람과 같이 가거나 혹은 영어로도 업무를 보는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Lichtenberg의 Normannenstr. 1에 있는 Bürgeramt에서 했는데, 이 곳에서는 영어로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끝나면 확인 증서를 받습니다.
- H. 은행 계좌 개설 - Residence Registration 증서, 여권, TU Berlin 학생증 (또는 입학허가서) 을 가지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간혹 4-K에서 설명할 Residence Permit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우선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면서, Residence Permit을 받아서 은행에서 확인할 날짜를 약속하면 됩니다.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가 우편으로 약 1주일 뒤에 도착합니다. 저는 Berliner Sparkasse를 사용했는데, 지점과 ATM이 많아서 편리했습니다.
- I. 기숙사비 자동이체 신청서 제출 -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동이체 신청서에 그 정보를 적어서 Hausmeister에게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기숙사비가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J. Welcome Money 신청 - 5-A에서 설명할 Early Bird Meeting에서 받은 Welcome Money 신청서를 Bürgeramt에 가져가서 도장을 받고, 이걸 다시 International Office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청서에도 은행 계좌 정보를 적어야 하며, 이후에 50유로가 계좌에 입금됩니다. 저는 신청서 제출 후 4주 뒤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 K. Residence Permit - 독일 입국 90일 이내에 Residence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TU Berlin을 통해서 신청했는데, 3월 중순에 신청해서 5주 뒤에 받았고 이 기간 동안 여권을 맡겨야 했습니다. Main Building H51에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Counseling 사무실에서 매주 금요일 10시에 예약 신청을 받았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입학 허가서, Residence Registration 증서, Health Insurance Waiver, Bank Account Statement, 여권 사진 2장이었습니다. Bank Account Statement는 독일의 은행 계좌에 670 유로 이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고, 저는 약 3000 유로를 입금했습니다. 여권 사진은 사진에 여백이 거의 없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서 한국에서 가져간 여권 사진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Berlin에서 새로 여권 사진을 찍었고,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Residence Permit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권을 일찍 돌려받아 여행을 가야 할 때에는 여행의 교통 티켓을 복사해서 제시하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5. TU Berlin 교환학생 관련 할 일

- A. Early Bird Meeting – Preparatory German Course 수강을 위해 3월에 Berlin에 온 교환학생들에게 앞으로의 할 일을 설명해주는 자리인데, 여러 면에서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증의 교통권은 4월부터 유효한데, 3월에 사용할 교통권 (4-C) 을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환학생들을 만나서 여러 할 일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Placement Test (5-B) 의 시간도 알려주고, Welcome Money (4-J) 신청서도 나눠줍니다.
- B. Placement Test – Preparatory German Course 반 배정을 위한 시험을 보는데, Early Bird Meeting 당일과 그 다음 날에 나눠서 시험을 치릅니다. 반 배정 결과는 Course 시작 하루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 C. Proof of Health Insurance – 2-B에서 설명한 영문 보험 가입 증서를 AOK에 가져가서 제시한 다음 Health Insurance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TU Berlin 근처의 Hardenbergstr. 8에 있는 AOK에서 처리했는데 이 AOK는 월~목 10~1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 D. Semester Contribution – Main Building의 H2106에 있는 Universitätskasse에 가서 Semester Ticket을 위한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Semester Ticket은 이후에 받을 학생증에 붙어 있는 교통권으로, Berlin A, B, C 구역과 Potsdam의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교통권을 2013년 4~9월에 사용할 수 있었고, Universitätskasse는 월~금 9~13시에 열었으며 229.4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 E. Enrollment – Health Insurance Waiver (5-C), Semester Contribution 영수증 (5-D), 그리고 Online Enrollment 결과 (1-E) 를 International Office에 가져가서 TU Berlin에 학생으로 등록을 합니다. 저는 Main Building의 H41b에 교환학생 담당자 Olaf를 찾아가서 처리했고, Office Hours는 화, 목 9:30~12:30이었습니다.
- F. Preparatory German Course 수강료 – Course 수강을 위한 수강료 역시 Universitätskasse에 납부합니다. 이 영수증을 받아서 Course를 제공하는 ZEMS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고, ZEMS는 Hardenbergstr. 16~18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수강증을 받는데, 이 수강증은 이후 ZEMS 건물의 컴퓨터를 비롯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G. tubIT 계정 등록 – 5-E에서 설명한 Enrollment 1주일 뒤에 우편으로 학교 등록에 관한 서류와 tubIT 계정 등록 안내서가 도착합니다. Immatrikulationsbescheinigung이라고 적힌 안내서에는 학번과 임시 비밀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정보로 tubIT 계정을 만들면, 2~3일 후에 우편으로 학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은 POSTECH의 HEMOS 계정처럼 사용하는데, TU Berlin 내의 Eduroam이라는 Wi-Fi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 H. New Student Orientation – 4월 초에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인데, 사실 3월의 Early Bird Meeting에 참석했다면 딱히 새로운 정보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강의 수강

A. 개설 강의 정보 찾기

- i. <http://www.tu-berlin.de/lsf> 에서 Online-Vorlesungsverzeichnis에 들어가면 TU Berlin에서 개설하는 강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Summer Semester의 강의 정보는 2월 말부터 찾을 수 있었는데, Vorlesungsverzeichnis에서는 각 학과의 강의 목록을 볼 수 있고 Suche nach Veranstaltungen에서는 학과, 강의 언어, 강의명 등으로 원하는 강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ii. 학과별 강의 목록에서 강의를 찾는 것이 더 편리했는데, Vorlesung (강의) 에 Übung (연습) 이 있는지 확인하기 쉽고, 일부 과목의 경우 강의 언어는 독일어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강의 계획에는 영어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 강의 홈페이지 – 많은 강의에서 강의 자료와 숙제를 배포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사용합니다. ISIS, MOSES, 교수나 조교가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ISIS (<https://www.isis.tu-berlin.de>) 는 5-G에서 설명한 tubIT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원하는 강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MOSES (<http://www.moses.tu-berlin.de>) 는 수학과 강의에서 사용하는데, 제가 수강한 강의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하는 강의의 경우 개강 후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C. 수강 신청

- i. 따로 인터넷을 통해 수강 신청을 미리 해야 하는 과목은 본 적이 없었고, 대신 1~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종이에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수강생 명단을 작성할 경우 교수와 조교에게 자신이 교환학생임을 말하고 귀국 이전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ii. 처음에 강의를 몇 번 들어 보고 수강 여부를 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 첫 수업에서 강의나 연습 시간을 변경하거나 강의 언어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첫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학과 강의의 경우 한 강의에서 연습 시간을 2~3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습 시간과 사용 언어를 정하는 데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많은 강의에 참석해본 다음, 시간표나 강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수강할 과목을 확정하면 POSTECH으로 변경 내용을 전달합니다.
- iii. 저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과목을 단기유학에서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평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직접 겪으면서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Algorithmic Graph Structure Theory라는 과목이 저에겐 그런 경우였는데, 숙제 문제도 많이 틀리고 생소한 이론도 배우면서 오히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D. 강의 진행 - 2 SWS에 해당하는 한 번의 강의는 일반적으로 90분간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강의 시간이 10~12시일 경우 10:15~11:45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학과 강의의 경우 매주 숙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과목에서 전체 숙제 점수의 절반 이상을 받아야 학기 말에 시험을 볼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는 5-H에서 설명한 4월 초의 New Student Orientation이 있는 주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고, 13~1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7월 초 ~중순이 되고 곧바로 시험이 이어집니다.

E. 시험

- i.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1번만 보는 경우가 많으며, 5월 말을 전후로 각 강의에서 시험 일정을 공지합니다. 7, 9, 10월 등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짜를 제공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시기의 시험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교환학생의 경우 자신이 시험을 보고 싶은 시기를 교수와 조교에게 알리고 시험 등록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고, 또한 귀국 이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 ii. 수학과 강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Oral Test를 보는데, 교수와 조교가 동참한 채로 약 30분간 진행됩니다. 강의에서 다룬 중요한 주제 2~3개에 대해서 정의와 정리를 물어보고 그 증명 과정을 요구하면서 이론 전개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교수는 질문을 하면서 학생과 토론을 이어나가고, 조교는 이를 지켜보면서 평가를 기록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Oral Test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Oral Test에서는 공부한 것을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번 경험을 하고 나니 조금은 적응이 되어서 이후 다른 2번의 Oral Test는 비교적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Oral Test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자신 있는 주제를 먼저 제시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는 편이 좋고, 강의에서 교수가 소개한 정의와 예시, 증명한 정리를 중심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F. 다른 대학 강의 수강 - TU Berlin 학생 자격으로 HU Berlin, FU Berlin, UdK 대학의 강의를 Nebenhörer 자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HU Berlin에서 강의 하나를 들었고, FU Berlin에서 체육 수업 하나를 들었습니다. HU Berlin의 강의는 <https://agnes.hu-berlin.de> 에서 찾아볼 수 있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Unter den Linden 6에 있는 Student Service Center (<http://www.hu-berlin.de/interessierte/compass/ssc-en>) 에서 Nebenhörer 신청서를 받아서 수강하고 싶은 교과목 교수의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강하는 과목이 적힌 수강증이 우편으로 도착하는데, 이걸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제시해야 합니다. HU Berlin에서는 강의 진행에 Moodle (<http://moodle.hu-berlin.de>) 을 사용하는데, TU Berlin의 ISIS처럼 강의 자료와 숙제,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U Berlin의 체육 수업은 <http://www.hochschulsport.fu-berlin.de> 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저는 펜싱 수업을 들었습니다.

G. 수강한 과목 - 저는 TU Berlin에서 수학 3과목, HU Berlin에서 경제 1과목 (Game Theory) 을 수강했습니다.

- i. Combinatorics - Twelffold Way, Catalan Number, Generating Function, q-Enumeration, Double Counting, Poset, Matching, Cycle Index, Partition, Linear Extension, Design Theory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Stefan Felsner 교수님께서 영어로 강의하셨고, 이 강의는 2년 주기로 개설되었습니다. 매주 수업 2번에 연습 1번이 있었는데, 연습 시간에는 그 주의 숙제를 풀어서 자신이 푼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매주 나오는 숙제는 다소 많았지만, 시간을 두고 풀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page.math.tu-berlin.de/~felsner/Lehre/ds113.html> 또는 <http://page.math.tu-berlin.de/~felsner> 에 있습니다.
- ii. Geometry II: Discrete Differential Geometry - Tractrix, Darboux Transformation, Möbius Transformation, Curve Flow, Discrete Curve, Cross Ratio, Conformal Map, Circle Packing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Boris Springborn 교수님께서 영어로 강의하셨고, 이 강의는 1년 주기로 개설되었습니다. 매주 수업 2번에 연습 1번이 있었는데, 연습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매주 나오는 숙제는 양이 적었고, 난이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3.math.tu-berlin.de/geometrie/Lehre/SS13/GeometryII> 또는 http://www.naturwissenschaften.tu-berlin.de/math/arbeitsgruppen/ag_geometrie_und_mathematische_physik/studium_und_lehre 에 있습니다.
- iii. Algorithmic Graph Structure Theory - Turing Machine, Tree Decomposition, Tree Width, Separator, Monadic Second-Order Logic, Plane Graph, Spanning Tree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Stephan Kreutzer 교수님께서 영어로 강의하셨고, 이 강의는 1년 주기로 개설되었습니다. 매주 수업 2번에 연습 1번이 있었는데, 연습 시간에는 지난 숙제에 대한 풀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2주 마다 나온 숙제는 많지 않았지만, 그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logic.las.tu-berlin.de/teaching.html> 에 있습니다.
- iv. Game Theory - Nash Equilibrium, Indifference Principle, Correlated Equilibrium,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Bayesian Nash Equilibrium,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Matthias Lang 교수님께서 영어로 강의하셨고, 이 강의는 1년 주기로 개설되었습니다. 매주 수업 1번에 연습 1번이 있었는데, 연습 시간에는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2주 마다 나온 연습 문제는 많지 않았고, 난이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wiwi.hu-berlin.de/professuren/vwl/wtml/lehre> 에 있습니다.

7. 기숙사 사용

A. 시설, 위치, 사용료 - 1-A-iii에서 설명한 것처럼 TU Berlin을 통해서 기숙사 신청을 하지만, 실제로는 Studentenwerk Berlin (<http://www.studentenwerk-berlin.de>) 에서 기숙사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Berlin 곳곳에 기숙사가 분포되어 있고, 한 기숙사 안에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와 TU Berlin 사이의 거리는 기숙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TU Berlin과 가까운 기숙사의 사용료가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숙사 사용료는 기숙사 방 내부의 시설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B. Victor Jara - 제가 사용한 기숙사의 이름은 Berlin 동쪽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Victor Jara였는데, 주소가 Oberfeldstr. 132인 건물이 House 1이고 Oberfeldstr. 111은 House 2입니다. 방 안에는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있는 싱크대, 침대, 책상, 옷장, 책장, 난방 시설이 있습니다. 기숙사 방은 1인실인데, 2명이 함께 써도 될 정도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기숙사 건물 옆에는 잔디밭과 배구, 농구, 축구, 탁구 시설이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맞은 편에는 Berliner Sparkasse 은행, 약국, 음식 재료가 많은 Kaiser's, 생활 잡화를 파는 DM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용료는 215유로였고, 전기, 수도, 난방, 가스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었습니다. 세탁은 한 번에 2유로였고, SSV라는 기숙사 자치회가 있어서 월, 목 20~21시에 사무실을 찾아가면 인쇄를 하거나 중고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TU Berlin까지 가는 데에는 50분 정도 걸립니다.

8. Berlin 생활, 여행 및 기타

- A. 휴일 – Preparatory German Course와 Orientation 사이의 부활절 기간, 즉 3월 말~4월 초가 휴가 기간인데, Good Friday, Easter Monday가 이 기간의 공휴일입니다. Summer Semester 기간 동안 Berlin의 다른 공휴일은 Labour Day, Ascension, Whit Monday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B. 시간대와 Summer Time – 독일은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되면 Central European Time (UTC+01:00) 에서 Central European Summer Time (UTC+02:00) 으로 시간대를 변경합니다. 따라서 한국 표준시 (UTC+09:00) 와의 시차가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듭니다.
- C. 날짜와 숫자 – 독일 사람들은 날짜를 쓸 때 일.월.년 순서로 쓰는데, 예를 들면 02.03.13 은 2013년 3월 2일을 뜻합니다. 또한 손으로 글씨를 쓸 때 1과 7을 조금 다르게 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D. 인쇄 – TU Berlin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가장 좋은 곳은 EN Building의 PC Pool인데, 이 곳에서는 Mensa 카드 (TU Berlin 내의 식당인 Mensa를 이용하는 카드) 로 인쇄 금액을 tubIT 계정에 충전해서 인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ZEMS에서도 인쇄를 할 수 있었고, Main Library에서는 Alpha 카드를 사면 인쇄를 할 수 있었습니다.
- E. Office Hours – 독일에선 학교와 기숙사 직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무실이 제한된 요일과 시간의 Office Hours를 정해두고 이에 따라서 근무하기 때문에, Office Hours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 F. 클래식 음악 – Berliner Philharmoniker (<http://www.berliner-philharmoniker.de>) 라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있는 Berlin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우선 Berlin에는 Berliner Philharmoniker 외에도 Rundfunk-Sinfonieorchester Berlin, Konzerthausorchester Berlin, Staatskapelle Berlin 등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Berliner Philharmonie에서는 매주 화요일 1시에 실내악 공연이 무료로 열리고, 바로 옆에는 악기 박물관 (Musikinstrumenten-Museum) 이 있는데 악기가 굉장히 많고 토요일 11시에는 직접 악기를 연주해주는 가이드 투어도 있습니다. 또한 Berliner Philharmoniker가 매년 6월 말에 Waldbühne라는 야외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연주도 웅장할뿐더러 사람들이 음악회를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이 흥겨웠습니다. 게다가 Berlin에는 유명 연주자와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많은데, 저는 Berlin에서 Pollini의 연주회와 Mariinsky Theatre Orchestra의 음악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 G. 여행 – Berlin Linien Bus, Eurolines, DB Bahn, Ryan Air, Easy Jet 등의 교통편을 이용하면 유럽의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8-A에서 설명한 부활절 기간, 그리고 학기가 끝난 다음이 여행을 길게 다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행을 그리 많이 다니지 않아서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녔고, 다 합치면 20일을 여행했습니다. 대신 저는 음악 여행을 테마로 정하면서 여행에 더불어 유럽 곳곳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음악회에 갔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는 유명하고 연주 실력이 뛰어난 오케스트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테마를 정하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Czech Philharmonic, Budapest Festival Orchestra, Wiener Philharmoniker, Russian National Orchestra,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Münchner Philharmoniker, Staatskapelle Dresden까지 유럽의 다양한 오케스트라의 음악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H. 경비

- i. 보험료, 항공료, 수하물 요금, 해외 송금 수수료 등 출국, 귀국에 드는 비용이 약 2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 ii. 3월 교통권, Semester Contribution, Preparatory German Course 비용을 합치면 약 450유로였습니다.
- iii. 기숙사 사용료, 휴대전화 비용, 인터넷 사용료는 매달 250유로, 5개월에 1250유로 가까이 들었습니다.
- iv. 점심은 Mensa에서 먹고 아침, 저녁은 직접 해먹었는데 식비가 매달 100유로, 5개월에 500유로 정도였습니다.
- v. 음악회는 티켓 가격이 약 45유로 정도였고, 20회 정도 가서 전체 비용은 약 900유로였습니다.
- vi. 여행 경비는 하루에 10만원 정도였고, 20일 정도 여행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vii. 위 비용을 모두 합치면, 1유로를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865만원 정도 들었고, 겨울 옷과 기념품 같은 기타 비용을 합쳤을 때 전체 경비는 약 900만원이었습니다. 단, 음악회 가격과 여행 경비가 335만원 정도 들었고, 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565만원 정도였습니다.
- viii.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음악회 가격과 여행 경비를 제외했을 때, 5개월 동안 Berlin으로 단기유학을 다녀오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는 50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될 비용은 단기유학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여행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또 어떤 것을 소비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단기유학 생활 정리

A. 기숙사

- i. 기숙사 사용 기간이 약 2달 정도 남았을 때, 기숙사 사용 종료에 관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는 2주 안에 기숙사의 Housing Administration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 기숙사 보증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계좌 정보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 ii. 기숙사 보증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은행 계좌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사용의 마지막 달이 되기 전에 Housing Administration을 찾아가서 마지막 달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기숙사 사용을 종료한 다음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를 7월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6월 중순에 현금으로 7월 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보증금을 은행 계좌로 받고 싶으면 마지막 달 사용료가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도록 그대로 두면 됩니다. 대신 9-A-i에서 설명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증금을 받을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iii. 기숙사 사용 마지막 달이 되면 Hausmeister가 방을 찾아와 청소 상태와 비품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숙사 방을 뺄 날짜와 시간을 약속해야 하는데, 이는 Hausmeister가 그 시간에 찾아와 방의 청소 상태와 비품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은 적어도 방을 빼기 1주일 전까지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iv. 방을 빼는 날 전까지 몇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고장이 난 비품은 미리 교체를 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세탁소에 맡겨서 빨래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하는데, Victor Jara의 경우 Ostbahnhof 역에 있는 Everclean이라는 곳에 가서 빨래를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방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 v. 약속한 시간이 되면 Hausmeister가 방을 찾아와 검사를 시작하는데, 청소 상태를 정말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방바닥, 화장실, 창틀, 옷장 위, 침대 밑 등 방 내부의 거의 모든 곳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통과하면 매트리스 커버를 빨래한 영수증, 세탁 카드, 우편함 열쇠, 방 열쇠를 모두 반납해야 하고, 그러면 방을 반납했다는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vi. 위에서 설명한 방 반납 증서를 Housing Administration에 가져가서 내면 기숙사 사용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9-A-ii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B. 성적 처리

- i. 수강한 강의의 성적을 POSTECH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적이 TU Berlin의 International Office에서 받는 Transcript of Records에 적혀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Office에서는 학생의 이름과 학번, 수강한 과목의 이름, Credit, Grade, 그리고 교수나 학과의 도장이 포함된 Schein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Schein을 받을 때 교수에게 이 점을 설명하고, 받은 Schein을 International Office에 가져가서 적합한 Schein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ii. 모든 Schein을 귀국 이전에 받았을 때에는 Schein의 정보를 Transcript of Records에 모두 적은 다음 Schein과 함께 International Office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처리된 Transcript를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iii. Schein을 귀국 이전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수에게 E-Mail로 Schein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Schein의 정보를 Transcript에 기입한 다음, 귀국 이전에 받은 Schein은 스캔 해서 E-Mail로 TU Berlin의 International Office에 보내고, E-Mail로 받은 Schein은 Transcript와 함께 International Office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 International Office에서는 처리된 Transcript를 POSTECH으로 보내게 됩니다.

C. 학생증 반납 - Main Building에 있는 Campus Center에서 교환학생이고 언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하면 2가지 서류를 줍니다. 하나는 학교 등록을 취소하는 서류로 모든 교환학생이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증의 교통권 환불을 위한 서류인데, Summer Semester의 경우 4~9월에 해당하는 교통권이 붙어있기 때문에 7월에 귀국할 경우 8~9월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60유로가 환불 가능했습니다. 여권을 준비해서 학생증과 서류를 Campus Center에 제출하면 Universitätskasse에서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D. Residence Registration 해지 - Bürgeramt에 가서 이를 해지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한은 없는 것 같았고 귀국 전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E. 은행 계좌 해지 - 마찬가지로 귀국 전에 은행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은행 거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여권을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F. Mensa 카드 반납 - Mensa 카드에 남아있는 금액과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Mensa 건물에 있는 기계나 카페에 카드를 반납하면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G. 휴대전화, 인터넷 해지 - 저는 O2에서 Prepaid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Prepaid라 별다른 해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 Hotzone을 사용했는데, 마지막 달이 되기 전에 E-Mail로 문의를 해서 해결했습니다.

H. 기타 - 이외에도 사용하거나 계약했던 것들은 평소에 기록해 두었다가 귀국하기 전에 모두 해지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절차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0. 결론

5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TU Berlin에서 공부하고, Berlin의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생활하고,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독일어를 잘 몰라서 겪은 어려움은 그리 많지 않았고, 물가도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Berlin이라는 도시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었고, 독일 사람들, 그리고 TU Berlin의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5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외국에서 보낸다는 일이 처음에는 무척 어렵게 느껴지면서 망설이게 될지도 모르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